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내 아기를 위한 몸짓언어

말이 트이기 전에 당신의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Sign With Your Baby : How to communicate with
infants before they can speak)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高昇俊

2011年 2月

내 아기를 위한 몸짓 언어

말이 트이기 전에 당신의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Sign With Your Baby : How to communicate with
infants before they can speak. 翻譯論文)

指導教授 朴 璟 蘭

高 昇 俊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2月

高昇俊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1年 2月

Sign With Your Baby :
How to communicate with infants before
they can speak.

Seung-Joon Ko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bruary 201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gn With Your Baby provides a new way for parents to communicate and bond with their infant or toddler. This book teaches hearing parents how to use simple sign language gestures to communicate with their hearing infants before their infants can speak. The Author, Joseph Garcia uses anecdotes, practical guidelines and humor to explain the benefits and method for taking advantage of this unique form of early communication. This book teaches elementary American Standard Language signing. This book will guide parents to recognize when their child is receptive to learning. He recommends which signs to teach first and shares ideas for games that can be fun and useful when introducing new signs. Eye contact, interaction and language developments are mainly featured in it's content. It aims at parents of babies age 6 months to 3 years. With a few of the simple signs in hand, the little ones can actually help mom and dad figure out what they need, using Eat? or More? sign. Parents who teach it to their babies may also see a broader social advantage. It helps parents to bridge communication barrier between their troubled babies and parents themselves. The book is also a useful reference with 145 clearly illustrated signs, enabling parents to choose and teach the signs that will be most beneficial to parents and their child.



조 셉 가르 시 아 ,
내 아 기 를 위 한

몸 짓 언 어

*Sign With
Your Baby*

추천 서문: 버튼 화잇 박사
번 역 : 고 승 준

내 아기를 위한 몸짓언어

말이 트이기 전에 당신의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조셉 가르시아

내 부모님, 에마와 빌 가르시아,
나에게 배움과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 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



추천 서문

수년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져 왔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 정도는 보통 세 돌이 될 때까지 습득된다. 또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놀랍게도 언어를 습득하는 그 첫 3년 동안에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학자들이 초기 몇 년간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간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삼십 여 년 전에 나온 논문에는 몸짓언어를 교육받은 아기들이 9개월이 되었을 때에 75개의 몸짓언어를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 시기의 보통의 아이들은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10개 이하의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뿐 이었다. 이 사실은 단일 연구에서 밝혀진 발견이긴 했지만,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기도 했다. 아주 최근 까지도 유아발달학계에서는 이 중대한 사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두 개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내가 7개월부터 몸짓언어를 가르칠 것을 권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몸짓언어는 제2언어를 대표하는데, 제2언어를 유아기에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면 두 돌이 되었을 때 아기가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언어만 구사하는 아이들에 비해 두 가지 언어 모두에서 더 잘 구사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분명히 우리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도 같은 경험을 하였다.

둘째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견한 것은, 특히 남자 아이들 중에는 제대로 발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돌이 될 때 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아기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 17개월에서 20개월의 월령의 아기들은 이 시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보통의 아기들은 좌절감을 잘 참지 못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 시기에 몸짓언어를 배운 아기들은 훨씬 좌절감을 덜 겪으며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모와의 밀착관계가 더 순조롭게 형성이 되며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8개월에서 22개월 월령의 아기들의 생각을 몸짓언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매우 흥미롭다. 머지않아 이 놀라운 방법을 활용하여 아기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리고 조셉 가르시아의 논문이 충분한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 이기에 나는 조셉 가르시아의 이 획기적인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1998년 6월, 버튼 L. 화이트 박사

부모 교육 센터 소장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and Raising a Happy Unspoiled Child'*의 저자

목 차

커뮤니케이션 : 아기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12
119... 구급차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14
아이들에게 이미 직관력이 있음을 입증하다.	16
큰 그림을 보라	18
잘못된 관행일지라도 오랫동안 반복되면 올바른 것이 될까?	18
왜 아이들의 지적활동을 몸짓언어로 시작하면 좋은가?	19
“아이들은 아직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22
어떻게 아기의 인지능력과 운동근육을 연관시켜 개발시킬 것인가?	22
아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23
공유된 인식과 공유된 의미	24
연상을 통해 배우다.	25
몸짓언어가 아기가 말을 배우는 것을 저해하게 될까?	26
나눌 것이냐 희생을 할 것이냐?	28
몸짓언어를 이용해 아기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29
손가락으로 이야기 하라	29
뚫어지게 보는 시선 : 몸짓언어를 시작할 최적의 순간	29

얼굴로 표현하라	31
지적 인격체로서의 첫 몸짓언어	32
아기에게 어떻게 몸짓언어를 보여줄 것인가?	33
어떤 몸짓언어를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까?	35
어디가 아픈지 말해줄 수 있겠니?	45
유용한 게임들	47
아기가 하는 몸짓언어를 이해하기	50
몸짓언어를 반복하고 강화하기	54
새로운 몸짓언어를 만드는 법	57
무언의 힘	58
기억해 둘 사항	58
미운 두 살? 미운 세 살?	60
마지막 당부의 말	61
손 모양	
어휘	
참고문헌	
색인	



커뮤니케이션: 아기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조그마한 아기는 주변 환경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한다. 아기와 부모와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다. 아기들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하여 보디랭귀지를 사용하고, 표정을 짓고, 다양한 웅얼이 소리를 낸다. 이러한 동작들과 웅얼이 소리는 나중에 언어로 발달하게 된다. 하지만 말을 하기 이전에는 아기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알아듣는 것은 부모로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부모라면 아기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수많은 부모들이 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 본능적으로 아기에게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인지 알아내고 싶은 생각을 한다. 아기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 것은 아기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이해하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아기들도 부모가 알아들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아기들은 충분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근육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와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아기들이 어떤 느

킴을 가지게 될 지 한 번 생각해 보라. 때때로 이 작고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아기들은 그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살아가려니 심한 좌절감마저 느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장 발달된 수단이다. 권위 있는 아동 행동 학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기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더 나아가 아기가 소통하려는 시도에 부모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기의 학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어떻게 하면 아기들의 학습과정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 책 내 아기를 위한 몸짓언어(*Sign with your baby*)는 아기의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간단한 손동작으로 아기와 대화를 시도했을 때 아기가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 지 한번 상상해 보라. 이를테면, 식사와 같은 일상의 활동을 어떤 특별한 동작을 통해 표현을 했다고 하자. 곧바로 아기들은 그 동작을 그 때의 상황이나 행동과 연관 지어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따라 해보면서 자신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들은 그 동작들을 계속 따라하게 되면서 그런 동작들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아들을 수 있는 첫 단어를 말하기까지의 기간은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간이거나 말이 정확하게 통하지 않는 기간일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소중한 몇 개월을 부모와 아기간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화로 채울 수도 있다. 아기와 의 손짓을 통한 의사소통은 부모와 아기 사이에 상호 이해를 위한 굳건한 기반을 닦고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19...구급차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부모로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내 아이가 울면서 왔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때만큼 무섭고, 좌절되고, 마음 아픈 적은 없었다. 나는 막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한다. 그 때 나는 내 기분을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했다. 부모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의 이야기는 다소 특이한 일화이기도 하지만 이런 당황스럽고 이상한 상황이 여러분의 아기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간단한 손동작을 배워야 하는 아주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

당신의 딸 ‘줄리엣’이 이제 11개월 되었고, 걸음마를 막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자. 줄리엣은 아직 혼자서 걸음마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혼자서 소파를 잡고서는 균형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다. 줄리엣은 바닥에 앉을 수 있고, 배를 깔고 혼자 뒤집을 수 있으며, 그리고 즐겁게 바닥을 돌아다닌다.

줄리엣은 웃기도 하고 웅얼이도 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내기도 한다. 요 근래에는 목소리 높낮이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다듬어 지지 않은 몇몇 소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하지만 “마마”, “빠빠”, “빠이빠이”, 혹은 “어우” 이외에는 아직 또박 또박 말을 하지는 못한다.

그 때 갑자기 귀여운 용알이가 서러운 흐느낌으로 바뀐다. 줄리엣은 앉아서 엄마를 찾으려고 둘러본다. 당신은 아기 옆에 앉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한다. 줄리엣은 엄마를 응시하며 잠깐 동안 울기를 멈추고 손을 들어 자신의 코앞에서 집게손가락을 부딪치는 행동을 한다.

당신은 줄리엣의 손의 움직임에 알아차린다. 그것은 아프다는 뜻이다. 지난 3개월간 이 동작을 줄리엣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것을 본 아기는 이제 이 손동작을 할 줄 안다. 그리고 이 손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뿐만 아니라, 아프다는 표현을 하기위해 사용한다는 것도 안다.

이제 아기를 안아 올린 후 생각한다. “코앞에서 손동작을 했으니까 코가 아픈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서는 아기의 코를 들여다본다. “흠... 여긴 괜찮은데, 줄리엣이 계속 우네? 바닥에 코를 부딪혔나보다.”

그런데 줄리엣은 당신을 쳐다보고 있고, 계속해서 코앞에서 손동작을 한다. 당신은 “뭐가 문제일까?” 라고 궁금해 하며 줄리엣의 머리를 뒤로 조금 젖힌 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 그 때 줄리엣의 코 속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부서진 장난감 기차의 바퀴 조각이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코에서 빼내자 줄리엣이 울음을 그친다. 그리고 엄마를 만족스런 얼굴로 쳐다본다. 줄리엣은 엄마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당신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기들에게 이미 직관력이 있음을 입증하다.

우리 가족 중에 청각 장애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늘 몸짓언어에 관심을 가져왔다. 1975년에는 미국 표준 수화를 공부했다. 나는 수화를 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고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수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중 몇몇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를 둔 친구였다. 그 친구들에게서 발견한 사실은,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말을 통해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더 일찍 몸짓언어로 의사소통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되어, 나는 아이들의 초기 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1986년에는 이 주제로 대학원 논문을 썼다. 말이 트이기 이전 시기의 아이들의 의사소통발달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찾아서 읽는 과정에서 그 때 나는 마거릿 블로와, 캐서린 넬슨, 티모시 무어의 논문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들의 논문은 말이 트이기 이전의 아기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표현하려고 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청각장애아들과 그들의 언어학습발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찾았다. 하지만 정상 아이들의 몸짓언어사용에 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아들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그 아이들은 청각장애가 없더라도 몸짓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때 나는 정상

인 부모와 아기가 몸짓언어로 의사소통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는 사실에 대해 궁금해 졌다. 계속 연구를 진행할수록,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는 확신이 생겼다.

내 연구의 다음 단계는 몸짓언어를 사용할 경우 말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일찍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유아 발달 관련 전문가들과의 상담과 실제 사례조사를 끝마치고 난 후 내린 결론은 아이들이 8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부모들이 몸짓언어를 이용해서 아기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통의 아이들이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1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도 말이다.

1985년과 1987년에 태어난 내 두 아들은 나에게 아기들에게 몸짓언어를 가르치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실제로 가르쳐 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갓 태어난 아들의 눈을 들여다 볼 때면, 아기들에게는 타고난 지능과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일 매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연구해 왔던 이론과 생각들을 적용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내 아들이 일찍부터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나로 하여금 아이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 말고도 여러 부모들이 경험을 통해 이 같은 보답을 받았다. 내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 중에는 몸짓언어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부모들도 있었고, 아주 조금 몸짓언어를 사용해본 부모들도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몸짓언어를 그렇게 어린 시기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들 상당히 놀랐다. 그리고 이런 의사소통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다. 내 책 <Toddler Talk>가 출판된 이후, 수 천 명의 부모들이 아기들과 몸짓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큰 그림을 보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기에게 무언가를 시도해 보기 전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기 바란다. 아이들에게 몸짓언어를 가르치기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부모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책에는 논문을 쓰게 된 배경과 논문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과 제안사항들을 수록하였다. 책 뒤쪽의 어휘 편에는 각각의 몸짓언어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수록하였다. 어휘 편은 평소 연습할 때 워크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의 발달 정도를 기록할 때 혹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메모나 기록을 해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잘못된 관행일지라도 오랫동안 반복되면 올바른 것이 될까?

믿지 않으실 지도 모르겠지만, 1930년대의 미국의 소아과의사들은 부모들에게 아기들은 안거나 안아 올리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들을 안거나 만지는 것은 아기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의사들의 말을 따랐다.



1940년대가 되어서야 이 견해를 비판하는 서적들이 발간되어 널리 읽혀지게 되었고 아기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의사들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함께 놀아주어도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포옹해주지 않은 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몸짓언어는 오래 동안 청각장애인 들만이 쓰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나는 사람들이 몸짓언어를 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거나 정상인(정상이란 의미가 뭐든지 간에) 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고 특이한 것에 접근하기 위해 더 현명한 방법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스킨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있어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청각장애인들이 우리에게 준 강력한 힘을 지닌 이 선물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실 이 선물은 여러분이 발견하고 열어주길 기다리는 보물 상자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



왜 아이들의 지적활동을 몸짓언어로 시작하면 좋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짓언어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

르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사소통 할 수 있다고 한다.



학자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90%가 시력을 통해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시각적인 민감성이 전반적인 발달에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들은 생후 몇 개월 동안은 시력을 통해 발달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아기들은 자연스럽게 웃거나, 웅얼이를 하거나, 우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나 기분을 표현한다. 자기 자신이나 주위 환경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이해한다. 아기들이 아직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표현방법이다. 예를 들어 ‘엄마, 배가 아파요.’, “더 먹고 싶어요.”와 같은 의사표현은 아직 하지 못한다.

아기들은 원래 움직임에 관심이 많다. 특히 그 움직임이 엄마나 아빠, 또는 그 이외에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일 때는 더욱 그렇다. 아기에게 몸짓언어로 소통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기는 당신이 보여주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유심히 관찰 하게 되고, 결국 그 동작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연관 지어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한 단어 정도의 말을 정확히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12개월에서 1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18개월에서 21개월이 넘어서야 두 세 단어로 된 문장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기들의 시각과 운동근육은 말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부터 연동하여 움직인다. 다시 말하자면, 아기는 언어로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이전부터 손으로 몸짓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몸짓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아기에게 단순히 웃거나 웅얼이하거나 우는 것 보다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아기들은 말이 트이기 거의 1년 전 부터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몸짓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몸짓언어를 이용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몸짓언어는 주로 상징체계로 되어 있다. (어떤 사물의 외형을 대표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 혹은 행동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짓언어는 알아보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다. 한편 말은 임의적이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표현방법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몸짓언어를 예로 들어 보자. 몸짓언어로는 무언가를 입에 넣는 손짓으로 표현한다. 말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되며 각각 그 소리도 다르다. 하지만 손으로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먹는 행위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까?



“아기들은 아직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일찍부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기의 지능은 부모나 다른 양육자가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이 학습과정은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며, 그 후 몇 달간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접촉과 대화를 갈망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또한 자신의 요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고 부모를 관찰한다.

아기들은 몸짓언어나 말로 표현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또, 현재 부모와 자신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말이 트여서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기들은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아기들은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어, 어떤 수단이든지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어떻게 아기의 인지능력과 운동근육을 연관시켜 개발시킬 것인가?

아동 심리학자인 유진 존슨 박사는 생애 첫 두 돌 동안에 대부분의 아기들이 겪는 정신적인 발달과 신체적인 발육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존슨 박사는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4개월, 8개월, 12개월로 분류 하였다. 이 단계구분은 연구에 참여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낸 결과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아이들은 각각 다르며, 자신만의 성장과정을 거친다. 존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생에 있어 첫 두 돌 간은 다른 어떤 성장과정 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아기들은 4개월이 되면, 사물과 소리를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의 몸을 관찰하게 된다. 8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어른들이 하는 손동작과 행동을 따라 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가 되면 잠재적으로 아기들은 몸짓언어를 배울 준비가 된 것이다. 아기들의 운동근육은 손으로 사물을 꽤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고, 무언가에 의지해서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12개월이 되면, 아기들은 익숙한 동작, 예를 들면 마시거나 먹기와 같은 동작을 흉내 내기 시작한다. 아기들은 곧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하기 시작한다. 행동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좀 더 어려운 몸짓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물에 대한 용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운동근육의 발달은 더 많은 몸짓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

유아기가 끝나는 24개월이 되면, 사물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거나 몸짓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인지능력이 발달한다. 운동근육의 조정능력은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할 만큼 발달하며, 좀 더 폭넓은 몸짓언어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아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태어난 후 몇 개월 동안, 아기들이 겪게 되는 거의 모든 경험들은 새로운 것일 것이다. 아기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른들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어른들 만큼 기억이나 연상되는 사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우리들의 기억에 있는 것들을 결합하고 재배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뒷받침 할 거리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접한 것들을 아기들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험들은 아기들의 머릿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고, 앞으로의 학습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대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부모님들의 기억 속에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내 기억 속에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부모님에게는 사소한 일들이었던 것임이 분명했다. 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아기들의 기억에 어떤 것들이 뚜렷하게 남게 될 지는 부모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기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관찰하라. 그것이 바로 아기들의 기억에 남을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유된 인식과 공유된 의미

아이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몸짓언어와 그 의미를 아기들이 연결할 수 있을 지는 바로 아기들의 인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가 아기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아기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몸짓언어를 적절한 상황에서 보여준다면 아기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에 부모와 아기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기는 그 경험과 몸짓언어를 연결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부모는 몸짓언어를 아기에게 보여줌으로써 아기와 서로 공유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

당신은 지금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있고, 조이라는 당신의 아기에게 석양을 보여주기 위해 조이를 안아 올렸다고 상상해 보라. 그 때 조이에게 석양을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의도하는 대상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에 조이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자. 조이는 당신과 노을 사이에 있는 별판의 소를 바라보고 있다. 당신은 ‘노을’을 생각하고 아기는 ‘소’를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의도하는 의미와 조이가 의도하는 의미가 달라진다.(생각해 보라. 조이는 평생 소를 ‘노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마 수의학과에 들어간다면 제대로 졸업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연상을 통해 배우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연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 익숙한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 하지만 유아기는 기본적인 생존만을 하는 시기이므로 아기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어른들 보다 훨씬 적은 수의 단어나 제스처만 있으면 된다. 아기들의 인생에는 아직 대부분의 어른들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아기들에게 중요한 것일까?

태어난 지 첫 몇 달간 아기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스킨십, 음식, 편안함(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며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과 같이 필수적인 것에 한정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마마” “다다”와 같은

단어가 아이들이 처음 내뱉는 단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결국 아기들에게 있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연상을 할 대상인 셈이다.



아빠가 방으로 들어올 때 “아빠”란 소리를 내고 충분히 들려준다면 아기 에마(여러분의 아기라고 생각해 보라.)는 그 새로운 소리를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젖병을 물려주고, 가끔(운이 좋다면) 새 기저귀를 가져다주는 남자 어른과 곧 연관을 시킬 것이다. 에마는 이렇게 단어를 배우는 방식과 동일하게 몸짓언어도 배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먹기 시작할 때 ‘먹다’라는 몸짓언어를 보여주면, 에마의 머릿속에서는 맛이 좋은 흐늘흐늘 한 것, 던지면 즐거운 것이라는 의미와 몸짓언어를 연관시키게 된다.

몸짓언어가 아기가 말을 배우는 것을 저해하게 될까?

어떤 부모들은 몸짓언어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언어학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어린 시절에 여러 언어에 노출 된 아이들이 향후 언어 학습능력에 있어 높은 학습 수준을 가진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린다 아크레들로 박사와 수잔 굿윈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몸짓언어를 일찍 사용한 아이들은 몸짓언어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말하는 방법을 더 잘 터득한다고 한다. 이들의 연구는 또한 몸짓언어를 배운 아이들이 지능검사에서도 점수가 높으며,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더 넓은 어휘력을 갖추고 있고, 좀 더 복잡한 놀이에도 잘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의 저서인 *Baby Signs*를 보면, 아크레들로와 굿윈 박사는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아기들과 대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모든 부모들이 읽으면 좋을 훌륭한 참고서이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찍 몸짓언어를 사용했던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영어 구문을 몸짓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더 빨리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몸짓언어를 배운 아이들이 이미 문장을 만들어 사물에 대하여 말을 시작하는 반면에 몸짓언어를 배우지 않았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단지 단어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몸짓언어를 하는 아이들의 경우 몸짓언어를 통해 이미 어떻게 사물을

식별하고 감정이나 요구를 구별하는 지 학습했기 때문에 말을 배우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말이 트이기 전에 몸짓언어를 배우는 것이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기꺼이 할 것인가 아니면 내키지 않더라도 할 것인가?

어느 날 돼지와 닭이 농장을 함께 걷고 있었다. 먼저 닭이 말했다. “농부가 우리에게 참 잘 해 줬어. 우리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무언가 보답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돼지가 물었다. “무엇으로 갚으면 좋을까?” 닭이 제안을 하나 했다. “글쎄, 좋은 햄과 계란으로 멋진 아침식사를 대접하는 건 어떨까?” 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너는 나눠주는 거지만 나한테는 희생이 따르는 일이야!”



몸짓언어를 배우는 것은 우화에서 돼지가 말한 희생 보다는 닭이 할 수 있는 나눔의 정신을 더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아기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물들, 부모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을 이제는 손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아이의 일상생활과 관심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종류의 몸짓언어를 해 줌으로써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다.

몸짓언어를 이용해 아기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손가락으로 이야기 하라.

31쪽에서 아기가 처음으로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손동작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될 그 손동작들에 먼저 친숙해지라.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사용해 보기 바란다. 몸짓언어를 배우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 아마도 몸짓언어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귀찮은 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연습을 한다면, 몸짓언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아기들에게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다보면 아기들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기가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 또한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기들이 부모의 행동이나 움직임에 뚫어지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는 몸짓언어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뚫어지게 보는 시선: 몸짓언어를 시작할 최적의 순간

아기의 행동이나 습관을 주의 깊게 보다보면 아기의 눈빛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응시는 상호적인 지각작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이때가 몸짓언어를 시작할 최적의 순간임을 뜻한다.

아기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으로 아기에게 반응을 보여줄 준비를 하라. 아기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은 아마 세 가지 경우일 것이다.

표현의 눈빛: 아기가 무언가 필요를 느낄 때,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무언가 묻고 싶을 때

내가 지금 말씀드릴 다니엘을 여러분의 아이라고 생각해 보라. 다니엘이 사과이유식을 먹고 있다. 그런데 이유식을 다 먹었는데도 아직 배가 부르지 않다. 다니엘이 더 먹고 싶은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본다. 이 순간 엄마와 아기의 눈이 마주친다. 다니엘의 눈빛의 의미는 “조금 더”이다. 이 눈빛이 바로 표현의 눈빛이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조금 더.’라는 의미의 몸짓언어를 시작 할 때이다.



상호적인 눈빛: 아기와 부모가 우연히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동시에 서로를 응시할 때

아기와 부모가 방안에 마주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기의 눈이 방안을 훑어보고 있다. 이 때 부모와 아기의 눈이 마주친다. 순간 아기의 관심이 완전히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순간에 아기는 부모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방안의 사물들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다. 예를 들어, 아기에게 막 책을 읽어주려고 하고 있었다면 책을 표현해 보면 좋겠다.

집중의 눈빛: 아기와 부모가 동시에 같은 사물을 보고나서 서로를 응시할 때



고양이 한 마리가 방안에서 걸어 다니며 야옹 하며 울고 있다. 당신과 당신의 딸 니콜이 둘 다 고양이를 보다가 서로를 바라본다. 아기가 고양이를 보던 눈길을 당신에게 돌렸을 때 ‘고양이’라는 몸짓언어를 보여주라. 그리고는 고양이를 손으로 가리키라. 이처럼 집중의 눈빛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은 여러분이 주변 사물들에 관한 다양한 몸짓언어를 아기에게 소개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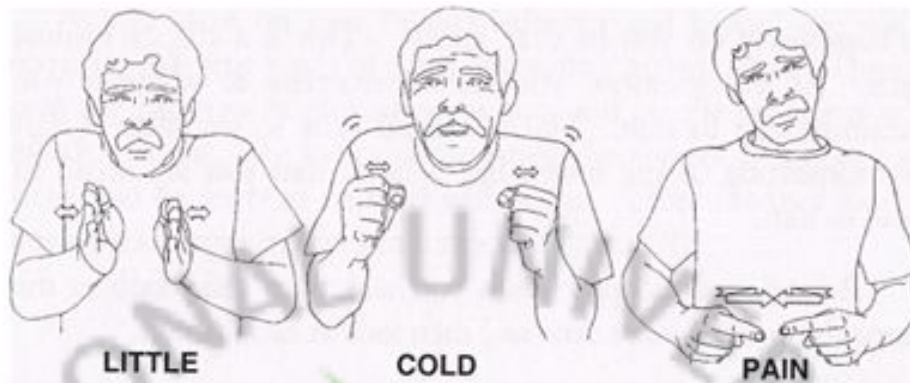
얼굴로 표현하라

유아기를 통해 아기들은 부모의 얼굴 표정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생생하고 명확한 표정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의미를 아기에게 전달할 수 있다.

얼굴 표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부모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아기가 더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 표정만으로도 여러 가지 뜻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얼굴 표정을 풍부하게 사용해 보기 바란다.

아래 그림에서 ‘작다’라는 표현을 하기위해 어깨를 움크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춥다’와 ‘아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눈여겨보기 바란다. 모든 말은 표정을 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적 인격체로서의 첫 몸짓언어

내 아들 스트레튼이 처음 손동작을 해보았던 것은 스트레튼이 여덟 달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나는 스트레튼이 뭔가를 더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더’라는 의미의 손동작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레튼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몇 개의 완두콩을 먹고 나서 갑자기 식탁을 두드렸다. 그다음엔 나를 올려다보며 ‘조금 더’라는 손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그 동작을 사용해 왔던 것처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 뜻을 이해하고 완두콩을 더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때 속으로는 펄쩍 펄쩍 뛰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다. 아들을 가르치는 것과 아들이 나에게 보여준 노력의 결실, 그 기쁨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 완두콩을 가져다주었다. 그 이후로 스트레튼은 그 손동작을 자주 사용했다. 스트레튼이 첫 몸짓언어를 보여주던 그 순간을 회상할 때마다 내 얼굴엔 그 날의 미소가 번지곤 한다.

내가 ‘조금 더.’라는 의미의 몸짓언어를 할 때면 나는 항상 “조금 더.”라고 소리 내어 말하곤 했다. 그래서 스트레튼도 그 몸짓언어를 할 때마다 입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더..더”라고 어설픈 소리를 내더니 몇 달이 지나자 비슷하게 발음을 해 내는 것이었다. 다른 부모들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아기에게 어떻게 몸짓언어를 보여줄 것인가?

몸짓언어를 보여주기엔 적절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때는 행동을 하기 전에 몸짓언어를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행동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언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만약 뒷부분에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직접 아기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 아기는 결국 경험과 몸짓언어를 연결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차례의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부모와 아기 사이에 공유된 의미가 형성될 것이다. 처음으로 시도한 몸짓언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서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기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몸짓언어를 익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아기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자신의 요구와 필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더 많은 몸짓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몸짓언어를 할 때는 아기가 부모의 눈을 쳐다볼 때 부모의 눈 가까이에서 해야 한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아기와 부모가 서로 마주보는 시선 안에서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주 동안 아기에게 몸짓언어를 보여주고 난후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몸짓언어를 보여주고 난 후 아기의 손을 잡고 모양을 만들어 주거나 움직이게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손을 움직여 달라는 듯 아기가 자기의 손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 아이와 게임을 하듯 진행해 나갔고, 아기 혼자 손동작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과정은 힘든 훈련과정이라기 보다는 아기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고, 이 놀이를 통해 아기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익혀 나갈 수 있었다. 어떤 한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부모로서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아기의 입술과 혀를 움직이게 해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이다. 물론 아기의 입술과 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직 부모의 능력 밖의 일일지 모르지만, 몸짓언어를 통해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바로 아기의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아기에게 몸짓언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라. 아기가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라. 더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몸짓언어를 보여주자. 그리고 아기를 안아주자. 부모가 아기를 안아주는 것만큼 더 좋은 칭찬은 없을 것이다.



어떤 몸짓언어를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까?

유아 심리학자들은 걷기 시작하는 아기들이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음의 목록은 아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세우게 해 주며,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할 만한 몸짓언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이름 짓기 (우유, 개, 책)
2. 누군가를 부르기. (아빠, 엄마, 할머니)

3. 무언가를 찾기 (신발 어디? 고양이 어디?)
4. 없어진 것들 (장난감 없다, 음식 없다)
5. 더 주기를 요청하는 것 (우유 더, 다시 숨어라)
6.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내 곰 인형, 네 양말)

처음에는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활동이나 요구들, 예를 들면 먹기, 마시기, 기저귀 갈기, 혹은 좀 더 주라고 요청하기와 같은 것들이 몸짓언어를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다. 내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시작하기에 좋은 몸짓언어는 ‘우유’, ‘조금 더’, ‘떡다’이다. 이들은 가장 단순한 것들에 속한다. 다른 몸짓언어를 추가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들을 최소 한 달간은 아기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작할 때부터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는 마라. 아기가 혼자서 몸짓언어를 하기 시작할 때 까지 이 기본적인 몸짓언어를 반복해서 보여주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몸짓언어를 더 추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한 살이 넘은 아이들이라면 가르치는 즉시 따라할 수도 있다.

‘아이와 몸짓언어하기’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아기들이 6개월에서 7개월 된 시기부터 몸짓언어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또, 8개월에서 11개월 된 아기들로 걷기 시작할 때부터 학습을 시작한 가족들도 있었다. 아기들에게 몸짓언어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데로 맞추면 된다. 빨라도 되고 늦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아기들이 6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몸짓언어의 이미지를 기억할 만큼 발달된 기억력을 갖게 된다.

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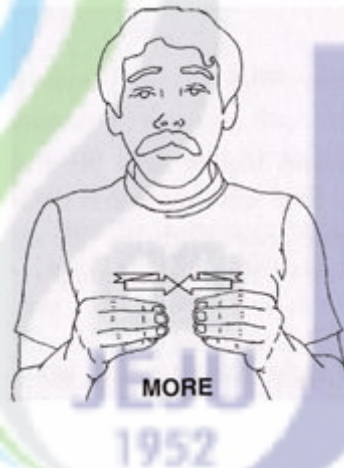
아기에게 먹을 것을 줄 때에 ‘먹다’라는 몸짓언어를 보여준다. 아기에게 음식을 주기 전, 음식을 먹는 동안, 또는 아기들이 스스로 먹으려고 시도할 때도 이 몸짓언어를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서 아기들이 그 몸짓언어의 뜻을 알게 되면, 먹고 싶을 때 그 몸짓언어를 사용을 하게 된다. 어떤 부모들은 아기에게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몸짓언어를 보여주고, 아기들의 반응을 보면 아기들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9개월 된 딸아이와 몸짓언어를 하는 한 가정이 있었다. 3개월 동안 아기에게 몸짓언어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아기는 아무런 몸짓언어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아기에게 몸짓언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아빠한테 식사 시간이라고 말씀드려”라고 말했다. 그러자 9개월 된 딸아이는 아빠에게 보행기를 굴리며 다가가서 아빠를 쳐다보며 ‘먹다’를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아빠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그 아이의 첫 몸짓언어였다. 아기들이 갑자기 몸짓언어를 하거나 말이 트이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조금 더?

젖병이나 모유가 비게 되거나 아기가 음식을 전부 다 먹었을 때, 혹은 단순히 먹기를 멈추었을 때 ‘조금 더’ 라는 몸짓언어를 보여 준다.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보여준다.) 그리고 더 주기 전에 잠시 기다린다. 아기들은 이 몸짓언어를 종종 배고픈 감정과 연관을 시켜서 배고플 때 ‘조금 더’ 몸짓언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아기들이 좀 더 복잡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와 ‘먹다’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정에서 아기들이 보여 준 첫 몸짓언어는 바로 ‘조금 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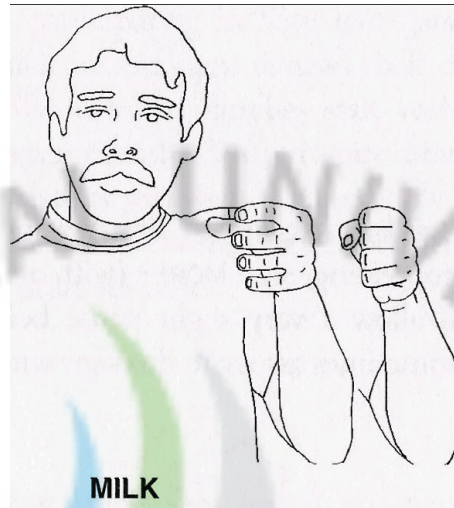


내 큰아들은 (8개월이 되었을 때) ‘조금 더’의 몸짓언어를 배우자마자, 그 몸짓언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우리가 간지럼 놀이나 우스운 얼굴 표정 짓기 놀이를 할 때 내가 놀이를 중단하면 아들은 제게 ‘조금 더’ ‘조금 더’ 라고 몸짓언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였다.

우유

여러분의 자녀가 우유를 먹을 때에는 (엄마 젖으로 먹든지 아니면 젖병으

로 먹든지 간에) 우유를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먹기 전과 후에 즉시 보여준다.



여러분의 아기가 우유를 달라고 할 때 (우유를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하면서) 그 보상으로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아기들은 자신들의 손동작으로 인해 보상(우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때때로 아기들은 우유가 아니어도 단지 무언가 마시고 싶을 때 이 몸짓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을 해 보고 다른 마실 것을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가르쳐 주라.

많은 아기들이 7개월부터 이 몸짓언어를 보기 시작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보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8개월에서 9개월 즈음이면 ‘우유’와 ‘조금 더’를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스스로 할 수 있었다.

화장실

초기에 가르쳐 줄만한 또 다른 몸짓언어는 ‘화장실’이다. 아기가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것이 보이면 이 몸짓언어를 아기에게 보여 주라. 시간이 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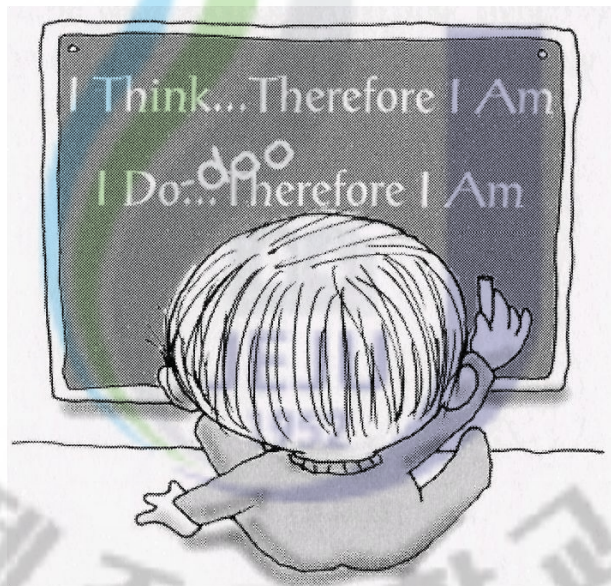
흐르면 기저귀가 젖거나, 용변을 보려고 할 때 ‘화장실’ 몸짓언어를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몸짓언어를 사실 아기들 보다는 부모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은 그 몸짓언어를 이해하기는 했지만 그리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다. 내 생각에 그 이유는 새로 나온 기저귀들은 축축한 느낌이 아기들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기위해 즉시 흡수해 버려서 마른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종류의 기저귀들은 젖었더라도 천 기저귀보다 훨씬 참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형 기저귀를 사용하는 아기들은 젖었다는 느낌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기저귀 가는 것을 크게 바라지 않게 된다.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부모들은 아기들이 새 기저귀의 편안함을 더 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몸짓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을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배변훈련을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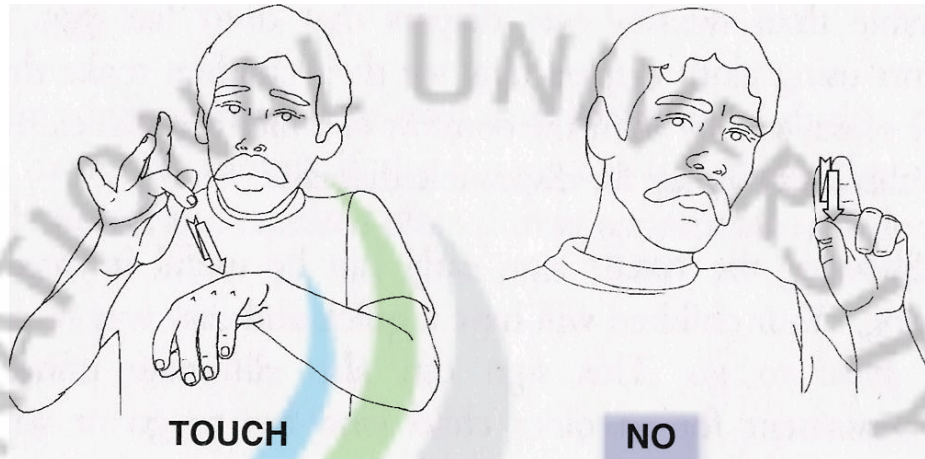
유용할 수 있다. 아기들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몸짓언어는 또한 좀 더 연령이 높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혹은 이미 옷에 용변을 보았을 때 불필요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몰래 부모에게만 알리는 데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 내 경우에도 아이들이 여섯 살, 여덟 살이 될 때 까지도 이 몸짓언어를 사용하였다. 가끔 아이들은 하던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할 때도 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배변을 참는 행동을 알아채면, 그 때 아이들에게 화장실이라는 몸짓언어를 몰래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변을 참을 수 있는 초인이 아니고 용변을 볼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지지 마

애런이라는 아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 당신과 애런이 집안에 식물로 가득 찬 친구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자. 애런은 아장아장 걸으면서 그 녹색 물체들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아기

애린은 다른 것들과는 다른 특이한 한 식물을 발견한다. 아기는 그 특이한 식물에 많은 관심이 생겨서 그 식물을 만진다. 알고 보니, 이 특이한 식물은 선인장이었다. 이제 당신은 애린을 달래고 손가락에서 선인장 가시를 빼면서 ‘만지지마’ 몸짓언어를 보여준다.



그것은 선인장이 아닐 수도 있다. 가끔 아기들은 스스로를 다치게 할 만한 물건에 손을 뻗기도 한다. 아기들이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만지지 마’를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보여주고, 연관을 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드시 고통이나 불편한 느낌을 동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거친 면이 있는 물건을 사용하라. (예를 들어 울이 굵은 삼베나, 거친 양모, 혹은 샌딩블럭과 같은 것들) 아기들의 민감한 피부에 불편한 느낌을 줄 정도의 물건이면 된다. 얼굴에 불편한 표정을 띠 채로 물건을 만지고 난 후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보여주자. 호기심이 많은 아기는 아마 그 물건을 만져보려고 하거나 실제로 물건을 만질 것이다. 그럴 때 마다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보여준다. 아기는 결국 ‘만지지 마’ 과 그 만졌을 때의 경험을 연관시키게 될 것이다.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배우고 이것을 경고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은 다른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아기들이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점을 보여주는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다. 여러분의 아기가 엠버라고 가정해 보자. 엠버는 이제 14개월이 되었고 개를 키우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다른 아기들처럼 엠버는 털이 달린 동물이 눈에 보이면 그 동물의 털을 잡아당기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그래서 당신이 말로 “저기 있는 개는 괴롭히지 말거라.”라고 주의를 준다. 그러면 엠버는 당신이 개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된다. 아마도 엠버가 당신의 말 중에 알아들은 단어는 ‘개’정도일지도 모르다. 아기는 그 ‘개’란 단어를 알아듣자마자 신이 나서 개에게로 달려가서 개의 얼굴을 가리키며 (혹은 개의 털을 쥐어뜯으며) ‘개’라는 단어를 자신이 알아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 상황은 물론,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다.

아기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의사소통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아기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맞추어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은 한 두 단어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으로 생각을 전달하려하기 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그 물건을 식별하게 하고 만지지 말 것을 명령하는 편이 낫다. 아기들이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이미 알고 있다면, “개를 만지지 말거라”라고 말하면서 ‘개’를 의미하는 몸짓언어와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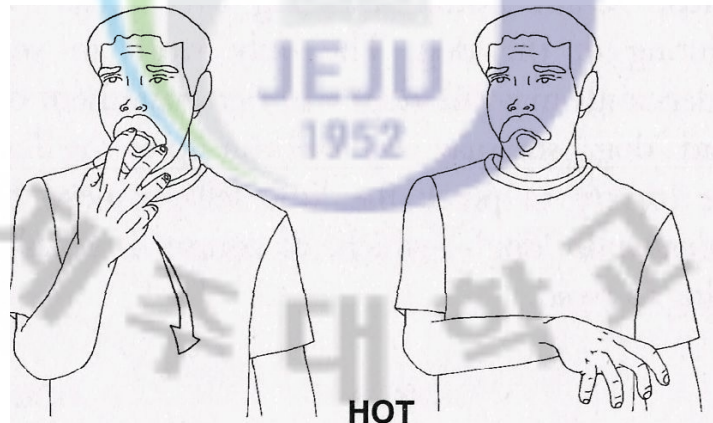
아기들에게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일찍 가르치는 데 성공한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기들이 실제로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거의 대부분 지시를

잘 따랐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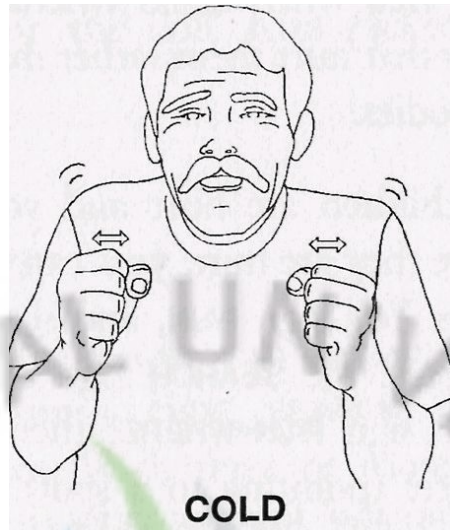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직접 하지는 않는다. 거의 보호자의 지시로써 사용된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하고서는 승낙을 기다리며 부모를 바라보는 아기들도 있었다. 몇몇 다른 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른 아기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면서 ‘만지지 마’ 몸짓언어를 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밝혔다.

뜨겁다, 따뜻하다, 차갑다.

‘뜨겁다’와 ‘따뜻하다’는 유용한 몸짓언어이며 아기가 먹는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이다. 예를 들어 먹기에는 너무 뜨거운 음식을 한 접시 가지고 있다고 하자. 여전히 김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는다. 그 음식을 가리키면서 ‘뜨겁다’ 몸짓언어를 하라.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양새는 아기가 뜨거움과 연관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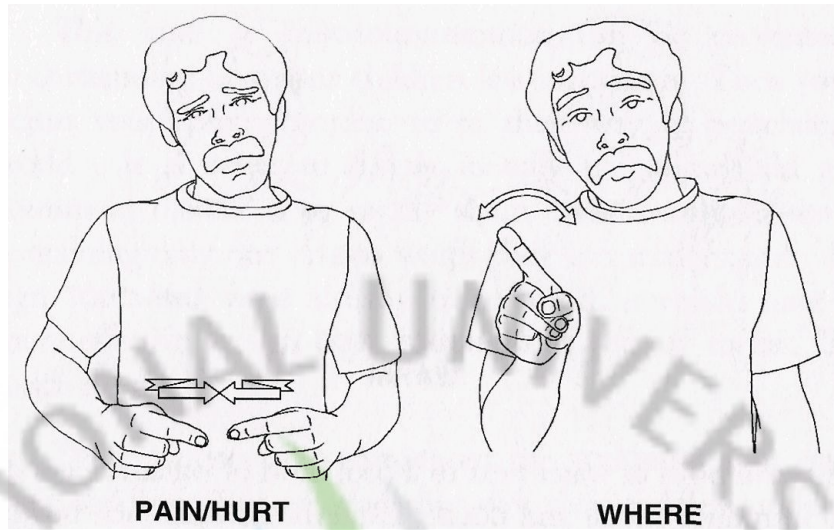
차가운 물 그릇 옆에 따뜻한 물그릇을 놓는 것도 ‘따뜻하다’와 ‘차갑다’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다. 시험 삼아 각각의 물그릇을 만져보게 하고, 알맞은 몸짓언어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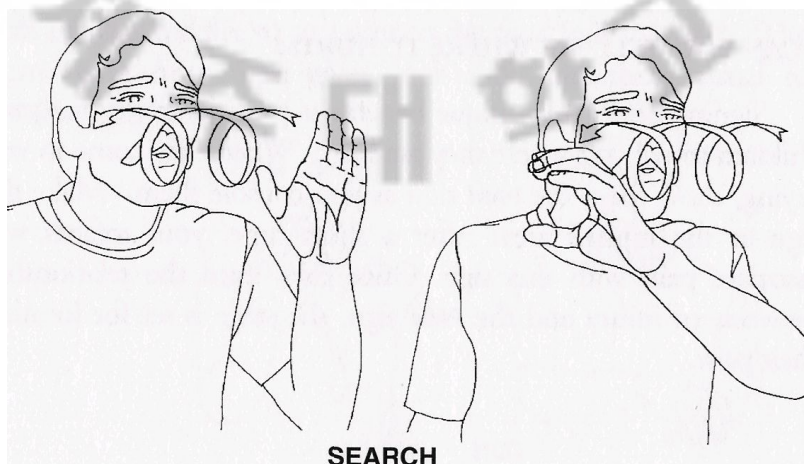
어디가 아픈지 말해줄 수 있겠니?

몸짓언어를 하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장점이 있다. 몸짓언어는 아기들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기들이 울면서 부모에게 오면, 아기를 달래면서 ‘아프다’ 몸짓언어를 보여주자. 아픈 부분에 대해 몸짓언어를 하라. 금세 아기들은 과 아픔을 연관 지을 것이다. 상처와 ‘아프다’ 몸짓언어를 연관 지을 수 있게 되면 다음은 어디가 아픈지를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흥미로운 것은 “어디가 아프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어디가 아픈지 보여주기 보다는 자신을 다치게 한 물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었다.



아기가 다쳤는데 어디가 아픈지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을 때는 ‘아프다’- ‘어디?’-‘찾다’ 순서대로 몸짓언어를 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우선 ‘아프다’ 몸짓언어를 보여 준 후에 ‘어디?’ 몸짓언어를 보여주고, 그리고 ‘찾다’ 몸짓언어를 아기의 몸 이곳저곳에 대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의 경우에는 ‘아프다’-‘어디?’ 순서대로 몸짓언어를 보여주고, 아들의 머리를 만진 후 다시 ‘아프다’ 몸짓언어를 보여주며 “이곳이니?(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라고 질문을 했었다. 이 방법으로 아들의 온 몸을 고개를 끄덕일 때 까지 계속했다. 많은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이 방법은 아픈 부분을 찾아내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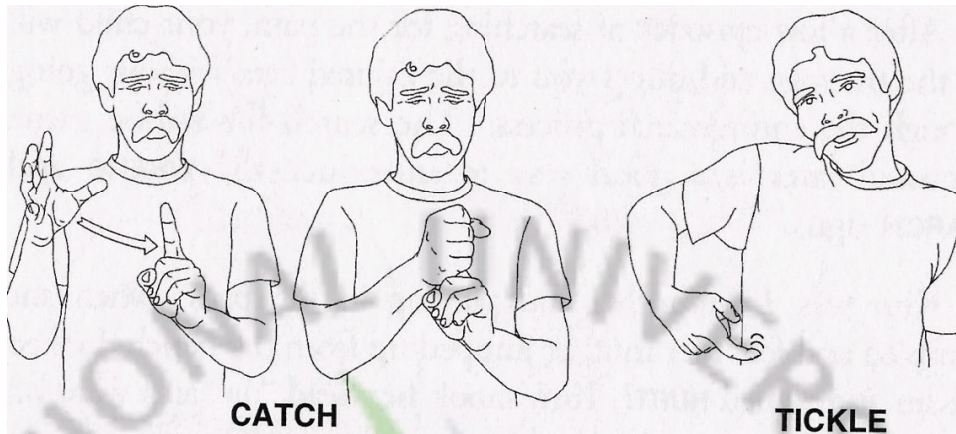
이렇게 아기가 아파하는 부분을 몇 번 찾다 보면 아기는 부모의 의도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반복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다친 부분을 부모에게 가리킬 것이다. 나중에 이 책에서 알려주는 ‘신발찾기 게임’은 ‘어디?’ 와 ‘찾다’ 몸짓언어를 아기에게 가르치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김 이라는 아기가 있다. 이 아기는 이제 14개월이 되었는데, 공원에서 놀다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엄마는 공원 벤치에서 뛰쳐나와서 김을 쳐다보며 ‘아프다’ 몸짓언어를 아기에게 보여주었다. 김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고, 다시 놀기 시작했다. 나중에, 엄마와 아기는 집에 돌아왔고, 김은 형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기는 다시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인형 위에 넘어졌다. 그런데 아기는 인형을 데리고 엄마에게 갔다. 김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서 엄마가 아프냐고 몸짓언어로 물어 보았다. 그러자 김은 인형을 내려놓고 인형에다 대고 ‘아프다’라는 몸짓언어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밴드를 가져와서 인형에다가 붙여 주었다. 아기는 기뻐하며 인형을 들고 갔다.

유용한 게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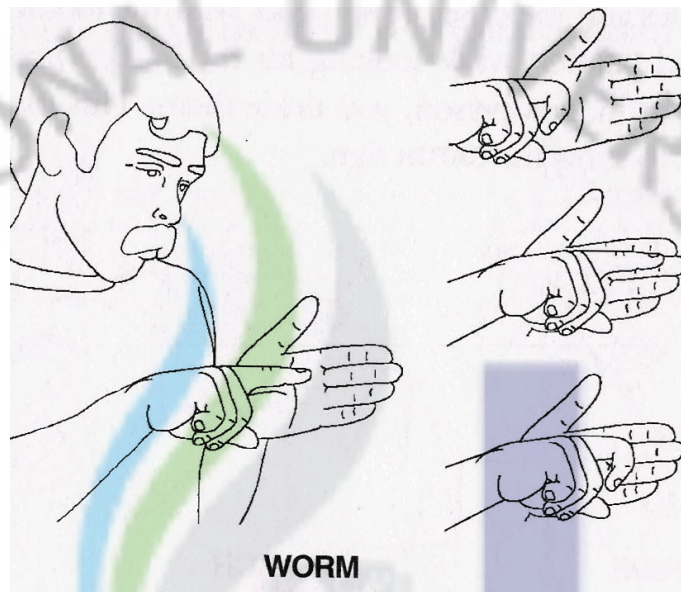
몸짓언어를 할 때 좀 더 창의적으로 상황에 맞춰 적용해 보라. 많은 몸짓언어들이 게임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숨다’, ‘찾다’, ‘잡다’ 그리고 ‘간질이다’ 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몸짓언어들이다. 세 명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숨다’, ‘찾다’, ‘어디?’, ‘간질이다’ 몸짓언어를 가지고 숨바꼭질을 할 수 있다. 한 명이 숨으면 다른 한 사람은 아기와 함께 ‘어디?’ 와 ‘찾다’ 몸짓언어를 사용하며 숨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면 된다. 숨은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간질이면 된다. 이때는 ‘잡다’ 몸짓언어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타

이핑이도 하다.



더 월령이 높은 아기들, 14개월에서 18개월이 된 아기들은 다음의 게임을 아주 좋아할 것이다. 아기들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장난감이나 아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아기들이 기어가거나 몇 발짝만 가면 찾을 수 있는 곳, 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다가 두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 몸짓언어를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보여준다. 아기들은 그 물건을 찾으러 가게 되는 데, 아기가 찾아내면 아기를 안아 주는 것이다. 이 게임을 반복해 주자. 그 때 마다 다른 곳에 물건을 숨겨 주라. 찾으러 가는 중에는 ‘찾다’ 몸짓언어를 보여주고 찾으러 가는 방향으로 몸짓언어를 해 주라.

어떤 가족은 ‘지렁이 잡기’라는 게임을 만들어 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우선 엄마가 낡은 장갑의 중지 부분을 잘라내서 작은 눈도 붙이고, 청소 솔도 붙여서 지렁이나 애벌레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만든 지렁이 인형을 중지에게 끼고, 아기에게 ‘지렁이’ 몸짓언어를 보여준다.



지렁이 모양을 한 손가락을 손바닥 앞에서 움직이면, 아기가 지렁이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아기가 지렁이를 잡을 때 마다 지렁이를 꿈틀거리게 준 후 아기를 안아 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몸짓언어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게임을 수도 없이 만들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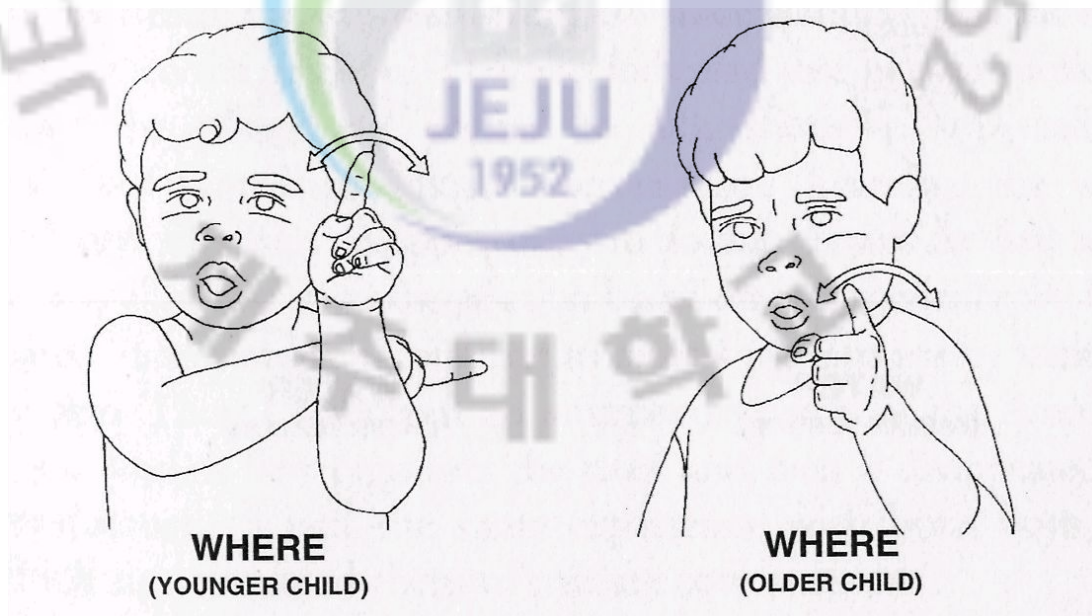
나는 내 아들들에게 동물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었는데, 새로운 동물을 볼 때 마다 그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몸짓언어를 보여주었다. 나중에는 이것이 게임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동물 그림을 볼 때 나는 그 동물의 이름을 말하고, 동물의 소리를 내며, 그 동물을 으로 보여주었다. 이 게임은 우리가 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아주 유용했다. 나는 동물을 볼 때마다 각각의 동물

들의 몸짓언어를 해 보였다. 내 아들들도 또한 동물에 대한 몸짓언어를 해 보이고, 내가 낸 동물 소리를 따라 했다.

이 책의 어휘 부분을 보면 악어, 곰, 벌, 새, 황소, 나비, 고양이, 소, 개, 코끼리, 물고기, 파리, 개구리, 말, 곤충, 사자, 원숭이, 모기, 쥐, 토끼, 뱀, 거미, 다람쥐, 거북이, 지렁이를 나타내는 몸짓언어를 수록하였다. (지렁이를 할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내게 좀 알려주길 바란다.)

아기가 하는 몸짓언어를 이해하기.

아이들이 몸짓언어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가르쳐 준 대로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는다. 아기들의 근육발달 정도는 아기들마다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아기들이라도 정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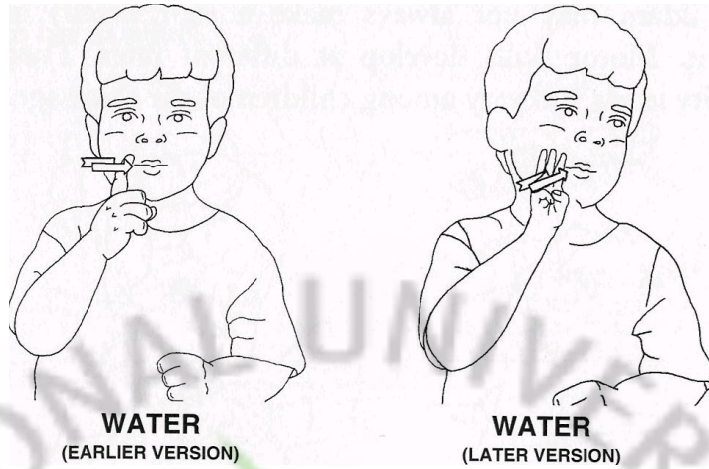


이 아이들이 ‘어디?’ 몸짓언어를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라. 한 아이는 양 손의 집게손가락을 들어 올리고서는 한 손으로 몸짓언어를 하고 다른 손은 지지대로 사용한다. 또, 다른 아이는 정확히 ‘어디?’ 몸짓언어를 하긴 하는데, 동작이 좀 더 넓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여러분의 동작을 따라하려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처음에는 손으로 만드는 모양들이 미숙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기들이 여러 모로 다르게 몸짓언어를 하더라도 몸짓언어를 정확히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라. 말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할 때 까지 반복해서 단어의 발음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바르게 몸짓언어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아이들이 처음 몸짓언어를 배울 때에는 아이들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내가 동작을 도울 수 있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구체적인 손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 몸짓언어를 하는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첫 번째 그림은 10개월 된 아기가 검지를 들어 올리면서 ‘물’을 의미하는 몸짓언어를 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 그림은 동일한 아기가 13개월이 되어 정확히 3개의 손가락을 들어 올려 몸짓언어를 하는 모습이다.



내 아들이 몸짓언어를 배울 때에는 알래스카의 시골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머리 위로 작은 비행기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그래서 ‘비행기’를 나타내는 몸짓언어를 일찍부터 배울 수 있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 나는 위를 올려다보고 비행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

다. 나는 ‘비행기’를 나타내는 몸짓언어를 하며 손을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또, 입으로는 “위이이이이잉”하는 소리도 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라는 단어를 소리 내어 말했다. 스트래튼은 태어난 지 10개월하고 보름이 지나자, 집게손가락을 들어 머리위에서 움직이며 “위이이이이잉” 소리를 냈다. 데미안의 경우에는 11개월이 되자 주먹을 쥔 손으로 같은 행동을 보이며 “뱅기”라고 소리 냈다.

내 아들인 데미안에게 처음으로 ‘비행기’ 몸짓언어를 가르쳐 준 때가 기억이 난다. 데미안은 그 날 종일 같은 몸짓언어와 소리를 반복했다. 그것은 그 몸짓언어가 이 비행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재확인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이 그 비행기에 관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때 나는 데미안이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행기’ 몸짓언어를 배운 것이 아기에게 이런 경험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 본 첫 번째 시도였다. 나는 몸짓언어로 응답해 줌으로써 데미안의 그런 시도를 더 독려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재현했다. 비행기가 큰 소리를 내고 있고, 나무 위로 높이 날고 있으며, 곧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아이 앞에서 동작으로 구현해 보았다. 나는 두 아이를 통해 같은 경험을 했다. 몸짓언어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조금 더’를 의미하는 몸짓언어로 아기와 몸짓언어를 시작한 한 어머니는 내게 와서 자신의 6개월 된 아이는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손뼉을 친다고 했다. 이 아이의 손뼉 (으로 치자면 웅알이 하는 수준이 되겠군요)은 나중에 손가락이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조금 더’를 의미하는 몸

짓언어가 되었다.

아이들의 몸짓언어는 변화과정을 겪는데 어떤 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 책에 수록된 어휘 부분에는 아기의 변형된 몸짓언어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몸짓언어를 반복하고 강화하기.

몸짓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가족 구성원 모두와 몸짓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즐겨 보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몸짓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다. 그러면 아기는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손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아기들은 계속해서 몸짓언어와 그 의미를 연결시키게 된다. 이 의미 연결은 아기가 몸짓언어를 보거나 스스로 해볼 때 마다 강화된다.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아기가 사용하는 몸짓언어를 알려주라. 만약에 아기들이 몸짓언어를 사용하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기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들은 어떤 때에는 빨리 반응하지만 어떤 때에는 비교적 느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기들이 몸짓언어를 시작하는 시기도 제각각 이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하라. 아기들이 아마 알 것이라고 (아기들이 몇 번 몸짓언어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아기들이 몸짓언어를 전혀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몸짓언어를 그만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속적으로 몸짓언어를 해 주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들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은 아기에게 있어서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나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실망했다거나 성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기들이 느끼게 된다면, 아기들은 흥미를 잃게 되고 이 모든 즐거움은 끝나 버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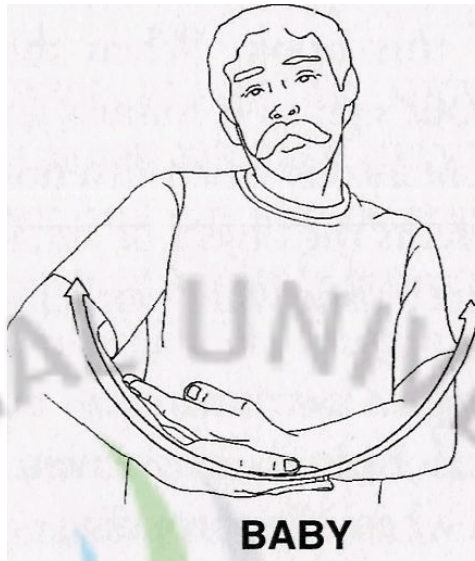
몸짓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 식사시간에는 아기들에게 평소 먹는 량의 반만 주고, 그것을 다 먹으면 ‘조금 더’ 몸짓언어를 사용해 보라.



또한, 아기들이 자기 그릇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는, ‘끝났다’ 몸짓언어를 보여주면 된다. 그런데 이 몸짓언어는 아기들을 그만 먹게 하고 싶을 때도 좋다. 아기들은 또한 자신이 무언가를 끝냈을 때 이 몸짓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기들의 몸짓언어 시도에 대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가짐을 가져라. 아기들이 몸짓언어 하나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몸짓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미루지 마라. 매일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단어들을 만들어 사용해 보라.

내가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은 제 아이들이 몇 주 동안이나 사용해 보지도 않았던 몸짓언어를 기억해 내고 사용을 한다는 것이었다. 스트래튼은 15개월이었을 때 며칠간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계속해서 만났었다.



나는 스트래튼에게 ‘아기’ 몸짓언어를 그때 마다 보여주었다. 하지만 스트래튼이 직접 그 몸짓언어를 해본적은 없었다. 3주 동안이나 아기를 본 적이 없던 어느 날 스트래튼은 아기를 보게 되자 나에게 ‘아기’라고 몸짓언어를 하였던 것이다.

다른 부모들도 아기들이 기억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서 매우 놀라워했다. 그렇지만 아기들의 기억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몸짓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아이의 요구를 미리 내다 보면서 하루 종일 몸짓언어를 사용해 보라. 아기와 함께 이 경험이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해 보라. 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몸짓언어도 덧붙여서 만들어 보라.

몸짓언어를 결합하기

아기들이 몸짓언어를 몇 번 하고 나면, 이미 배운 몸짓언어와 결합시키거

나 이미 알고 있는 몸짓언어들을 결합시켜볼 수 있다.

알고 있는 것들 : ‘조금 더’와 ‘우유’, ‘음식’과 ‘끝났다’, ‘아빠’와 ‘춤’, ‘차갑다’와 ‘물’, ‘어디?’와 ‘신발’ 등등

‘만지지 마’와 ‘아프다’는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다. 많은 아이들이 이 결합을 빠르게 배운다.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끔 ‘어디?’와 ‘엄마’ 혹은 ‘어디?’와 ‘아빠’를 결합하여 몸짓언어를 하곤 한다. ‘어디?’ 몸짓언어는 또한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몸짓언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몸짓언어를 만드는 법

때때로 어떤 특정 상황이나 사물이 아기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부모는 상황에 맞는 몸짓언어를 아기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몸짓언어 어휘 편에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몸짓언어 표현을 만들어 보라. 사물의 행동을 흉내 내거나 모양을 손으로 만들어 보라. 자연스럽게 사물의 외형적 특징을 표현해 보라.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아기가 보고 있다면 그 연주하는 모습 역시 하나의 몸짓언어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몸짓언어 표현은 간단하고 특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황에 맞는 얼굴 표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라.

아기가 자주 보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다면 그 특징

들을 찾아내어 몸짓언어를 만들어 보라.

새로 만들어진 몸짓언어 표현들을 설명과 함께 잘 기록해 두기 바란다. 이 책의 몸짓언어 어휘 부분을 보면 각 어휘마다 밑에 여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여백 사이에 여러분이 직접 만든 표현들을 채워나가기 바란다. 만약 특정 사물에 대해 매일 다른 몸짓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것은 아기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새로 만든 어휘가 있다면 아기에게 일관된 몸짓언어를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기록해 두기 바란다.

무언의 힘

몸짓언어를 할 때 여러분은 동시에 말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아기의 시각적, 분석적 감각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소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눈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은 아기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리를 듣고 말하는 감각이 쉬고 있는 동안 아기들은 다른 감각을 꺼내어 이용하고 계발한다.

기억해둘 사항

- 아기가 이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몸짓언어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한 후에도 몸짓언어는 아기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이고 생활의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 부모는 빠르면 아기가 7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몸짓언어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기는 8개월 혹은 9개월이 될 때까지는 몸짓언어를 따라 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라.
-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몸짓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 ‘조금 더’, ‘우유’, ‘먹다’ 정도의 어휘가 초기에 사용하기 좋은 어휘이다.
- 기회가 될 때마다 몸짓언어를 사용하여 아기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보라. 그리고 항상 일관된 몸짓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라.
-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몸짓언어를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아기가 좋아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에 관한 몸짓언어를 시도해 보라.(신발, 곰 인형, 책 등)
- 몸짓언어는 부모와 아기의 시선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하라. 아기는 눈빛으로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알린다. 아기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를 놓치지 마라.

- 몸짓언어는 숨바꼭질과 같은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다.
- 아기가 처음 몸짓언어를 시도하려고 할 때, 아기가 손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자.
- 되도록 많은 몸짓언어어휘를 익히고 아기에게 보여주자.
- 몸짓언어를 보여줄 때는 반복해서 보여주라. 일반적으로 아기가 몸짓언어에 더 많이 노출 될수록 아기는 더 빨리 몸짓언어를 익히고 사용하게 된다.
-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한다. 너무 성급하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 각자 자신만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가지고 있다.
- 즐겨라.

미운 두 살? 미운 세 살?

‘미운 두 살, 미운 세 살’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어린 천사들이 왜 이런 오명을 쓰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기들이 이 시기를 잘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기들은 두 살 혹은 세 살이 될 때까지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한 채 성장한다. 아기들은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

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몰라주는 거예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다. 그래서 아기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지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바라는 듯 미운 짓을 계속 해대는 것 일지도 모르다.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세상을 향한 외침인 것이다.

내가 앞에서 보여준 줄리엣의 경우를 기억하라. 몸짓언어가 없다면 부모는 아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어도 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것은 아기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당부의 말

아기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아기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얻는 것과도 같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기들의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아기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다면 아기들의 정서적 발달이나 지적능력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많은 연구가 입증하는 공통된 사항이 있다. 현명한 부모들은 아기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기반을 아기들이 한두 살이었을 때부터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아기와 커뮤니케이션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내 아이는 지금 학교에 다닌다. 하지만 아직도 몸짓언어는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소리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의 눈은 서로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된다. 나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조금 더 일찍 아이와 소통한다는 것은 부모자식 간에 더 돈

독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버지로서 몸짓언어는 내게 매우 큰 만족감을 주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기들과 몸짓언어를 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나의 교육방법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해 왔다. 부모로서의 기쁨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좋은 기반을 다져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아이들과 몸짓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아기들의 경험을 통해, 아기들이 몸짓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말을 배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기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 할 수 있게 되었다. 아기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아들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정확한 단어를 찾기 위해 나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몸짓언어를 처음 가르쳐 주기 시작할 때와 비슷한 과정이다. 아기들은 말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몸짓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 아기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 배우고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아기들의 지능과 기억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라. 비록 아기들이 지금은 정확한 발음을 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듣고, 익혀서 언젠가는 정확하게 따라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멍들다’, ‘베이다’, ‘긁히다’ 등 부상에 관한 정확한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다른 아기들이 ‘아야’ 정도의 말을 할 때 내 아이들은 부상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다른 종류의 어휘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기 바란다. 아기라고 해서 아기처럼 말하는 방법만 가르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당신의 소중한 자녀이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어떤 부모들은 미리 짐작하여 아기들의 요구를 재빨리 충족시켜준다. 물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기들에게서 표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일지도 모르다. 아기들이 소리 지르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단계가 되면 바로 몸짓언어를 시작하라. 이것이 아기가 의사표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다른 아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아기에게 몸짓언어를 시키지는 마라.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했던 몸짓언어를 다시 사용하지 못 한다고 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아기에게 보이지 마라. 몸짓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학습이나 공부라고 여기지는 마라. 아기에게 몸짓언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라. 아기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

